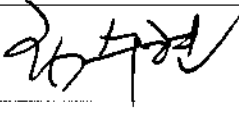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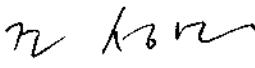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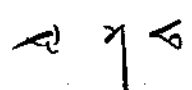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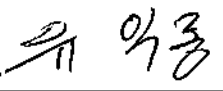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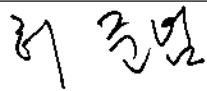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1. 일 시 : 2020. 08. 11(화) 15:00~16:00
2. 장 소 : 금강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 자문 및 심의안건 :
 - 2020학년도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성명	서명	성명	서명
고수현		조성민	
신동호(거성)		황돈희	
김형래		유익중(대명)	
이승남(광도)		허준범(자룡)	
박성민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 08. 11(화) 15:00-16:0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 석 자 : 교수현, 신동호(거성), 유익중(대명), 허준범(자룡), 조성민 이상 5명 >

< 불참석자 : 김형래, 이승남(광도), 박성민, 황돈희 이상 4명 >

< 배 석 자 : 신한국 이상 1명 >

교수현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재적의원 9명 중에서 참석의원 5명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회의의 안건은 금강대학교 2020학년도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팀의 설명]

교수현 의장 :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세요.

조성민 위원 : 입시 홍보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여러 변수들이 생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입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국대에 확인해본 결과 카카오톡 메신저상의 배너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학교에 대해 대외적 인지도가 낮은 시점에서 무작위 대상에게 기본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신한국 : 이번 추경 예산(안)의 입시 홍보 활성화 세부 예산에,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에 맞추어 카카오톡 배너 광고 사업 계획과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또 기타 입시 홍보 사이트와,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등에도 추가 광고 예정입니다.

조성민 위원 : 추가로 학생회관 배치와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추진 사업은 올해 초부터 진행되어왔고, 그와 관련해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요청 했던 사안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학기 2학기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당장 사용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안건이니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신동호(거성) 위원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예산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치토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학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북카페 리모델링 관련한 예산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타 대학 학생회관을 참고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곧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회 측에서 동문들의 기부금 및 기타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고수현 의장 :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는 전반적인 예산 조정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료의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참석 위원 : (전원) 동의합니다.

고수현 의장 : 2020학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재차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칩>